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칭의의 선물이다. 이어서 두 번째 유익은 성화이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예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9)고 기도하였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강력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우울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점차 성화하는 성장과 성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이것이 부활 신앙이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고, 죽어야 산다.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것인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라고 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가? 날마다 나 자신의 죄의 욕망과 욕심과 습관, 곧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죄의 욕망과 습관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기분과 감정에 솔직하며 육신의 욕망과 습관을 따라 살려는 것을 영으로 죽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뜻하는가? 많은 영어 성경들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고 “the Spirit”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의 욕망과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6:63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면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의 욕망과 습관을 따르고 자 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너는 이미 여기에 대해 죽은 자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하면서 죄의 욕망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것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성화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영화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52절)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의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몸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거나 변화시킬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나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또한 이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7-58).